

## 아. 라오스

'18년 GDP(십억달러)	18.13
'18년 인구수(천명)	7,060

### ■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(Global Cybersecurity Index, GCI)

· 라오스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.195로 하위권에 속함

국가명	2018		2017		전년대비 증감	
	지수	순위	지수	순위	지수	순위
라오스	0.195	121	0.392	77	-0.197	-44
대한민국	0.873	15	0.782	13	+0.091	-2

### ■ ICT 관련 주요 지수

· 라오스의 ICT 발전 수준은 대부분 100위권 이하로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음

지표명	라오스		한국	
	점수	순위	점수	순위
IMD 국가경쟁력지수(2019)	-	-	-	28
IMD 디지털경쟁력지수(2019)	-	-	-	10
UNCTAD 전자상거래지수(2019)	35.1	113	89.4	19
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(GCI 2018)	0.195	121	0.873	15
UN 전자정부 지수(2018)	0.305	162	0.901	3

### ■ ICT 관련 주요 통계 (ITU, 2018년 말 기준)

· 라오스의 이동통신(ICT) 보급률은 50%대로 아직 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용하지 않음

항목	라오스		한국	
	가입자수(천 명)	보급률(%)	가입자수(천 명)	보급률(%)
유선전화	1,482	20.99	25,907	50.63
유선브로드밴드	45	0.64	21,286	41.60
이동통신	3,662	51.86	66,356	129.67
인터넷 이용률	-		95.90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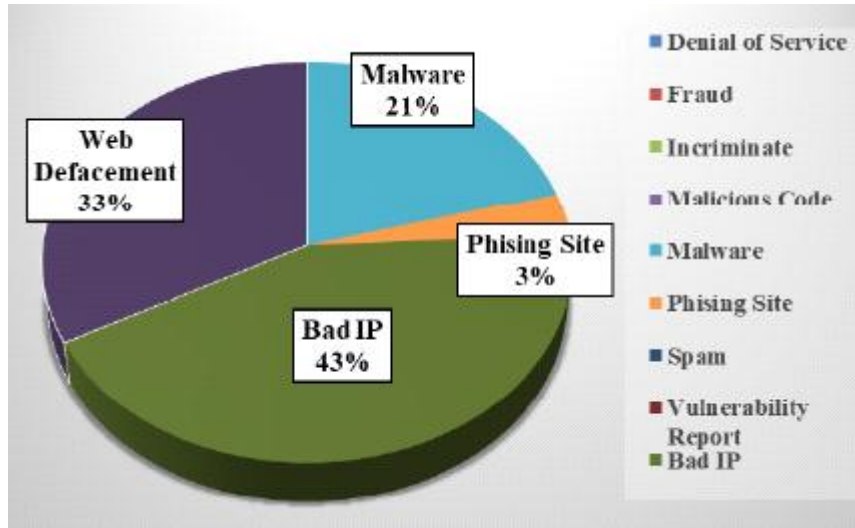
## 정보보호 산업 개요

### 1) 보안 환경

#### 정보보안

- ▶ ITU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(GCI)에서 라오스의 지수는 0.195로 전 세계 국가 중 120위, 아시아 지역에서는 22위로 하위권을 기록
- ▶ 국제 사이버 정책센터(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er)의 '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 성숙도 2017(Cyber Maturity In the Asia-Pacific Region 2017)'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의 사이버 성숙도는 30.3점으로 전체 25개국 중 19위로 하위권
  - 동 조사는 거버넌스, 사이버범죄, 군사, 기업 활동, 사회의 5개 방면에서 성숙도를 평가한 것으로 라오스는 2016년에는 23개국 중 20위로 2017년과 비슷한 순위를 유지
  - 라오스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기관 및 금융과 관련된 사이버범죄 법제 면에서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으며,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정책에 있어 군의 역할 면에서도 1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
  - 사이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과 사이버 이슈에 관한 법제/규제, CERT와 같은 사이버보안 지원기관의 존재 여부 등에서는 각각 4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
  - 사이버 문제에 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교류 현황에서는 4점을 받았으며, 사이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의 비중은 각각 3점을 기록
- ▶ 라오스 침해사고대응팀(LaoCERT)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라오스의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은 악성 IP의 비중이 4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웹 변조(33%)와 멀웨어(21%), 피싱 사이트(3%)가 그 뒤를 이었음

그림 \_ 2018년 라오스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



[출처] LaoCERT(2018)

### 물리보안

- ▶ 미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(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, OSAC)의 '2018년 라오스 범죄 및 안전 보고서'에 따르면 라오스의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, 무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의 발생 확률은 희박함
  - 이처럼 안정적인 치안 환경으로 인해 보안 장비에 대한 수요는 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나, 최근 라오스는 연평균 6% 후반대의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소득 증가와 함께 치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전망
  - 라오스 현지의 보안 제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개인의 보안장비 수요는 적은 편이나, 일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보안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점진적 성장이 예상됨

## 2) 인터넷 및 통신 환경

- ▶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'We are Social'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총 701만 명의 라오스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13% 증가한 270만 명으로, 보급률은 39% 수준
  -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.8% 증가했으며, 인구 대비 보급률은 81%를 기록

- 이동통신 가입자 중 선불제 가입자의 비중이 96%에 달하며, 3G와 4G 인터넷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가입자 비중은 57%임
-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60만 명으로, 전체 인구 대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37%이며, 모바일 인터넷 평균속도는 22.75Mbps로 나타남
- 전자상거래 관련 지표의 경우,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9%,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0.6%에 불과하며,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7.1%에 그쳤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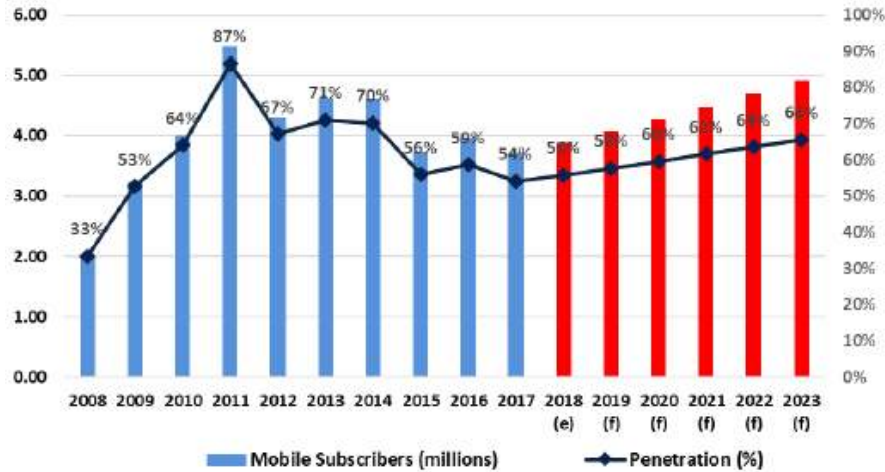
그림 \_ 라오스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인구 현황



[출처] We are Social(2019.1)

- ▶ 라오스의 이동통신 시장에는 Lao Telecom, ETL, Beeline, Unitel 등 4개 사업자가 있으며, Unitel이 시장 점유율 45%로 1위 사업자이며, Lao Telecom(38%)이 그 뒤를 잇고 있음
  - 시장조사기관 BuddeComm에 따르면 라오스의 이동통신 시장은 2023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으로,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시장 발전이 제한되고 있으며, 네트워크 유지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통신사들의 투자도 부족한 상황
  - 라오스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20년 60%에서 2023년까지 66%로 늘어날 전망이며, 2018-2023년 사이 4.8%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

그림 \_ 라오스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(2008~2023년)



[출처] BuddeComm(2019.3)

- ▶ BuddeComm에 따르면 라오스의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 보급률은 2012년 0.1%에서 2018년 0.4%로 매우 미미하게 성장하였으며, 앞으로도 성장세는 이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보급률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
  - 반면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4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
  - 라오스에서는 2012년 LTC가 처음 4G 서비스를 출시했으며, Unitel은 2015년 6월 수도 비엔티엔에서 4G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는 사바나켓, 루앙프라방, 참파삭 등의 주요 도시에서 4G 서비스를 제공
  - 2018년 기준 3G 통신망의 인구 커버리지는 78%, 4G LTE/Wimax의 인구 커버리지는 약 40%임
  - 2018년 기준 라오스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2% 증가한 246만 명으로 추정됨
  - 라오스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은 2018-2023년까지 7%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까지 보급률 46%에 가입자 수 345만 명을 기록할 전망
  - 이동통신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통신사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및 4G 서비스 보급에 따른 속도 향상이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
  
- ▶ 한편, 라오스에서 5G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, 라오스 우정통신부 주파수관리국은 2019년 5월 인터넷 사업자들과 가진 워크숍을 통해 주파수 정책과 네트워크 장비 수요를 논의
  - 라오스 정부관계자는 5G 네트워크 도입 여부는 시장 수요에 달려있다고 하며, 정부가 현재 교육, 의료, 농업 분야에서 5G의 잠재적 이익을 고려중이라고 밝힘

## 정보보호 시장 현황

### 1) 시장 규모

#### 정보보안

- ▶ 라오스의 정보보호 시장은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,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도 부재하여 단기간 내 국가적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
  - 라오스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은 ASEAN 국가 중 캄보디아에 이어 최하위로 평가되며, 인구수도 적어 해외 보안업체들도 라오스에 직접 지사를 개설하기보다는 태국 등 주변국가의 지사에서 현지 유통업체를 거쳐 제품을 공급
- ▶ 2016년 10월 라오스 우정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라오스의 ICT 관련 기업은 총 398개로 이중 ICT 보안업체로 분류된 업체는 단 한 개에 불과했으며, ICT 리셀러가 234개, ICT 설치 업체가 9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

#### 물리보안

- ▶ KOTRA 라오스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라오스는 보안 소프트웨어나 CCTV 등의 보안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IT 유통업체들이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수입함
  - 물리보안 시장의 경우 낮은 소득과 안정적인 치안 환경으로 인해 개인 소비자는 보안장비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지 않으며, 주로 기업과 기관,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보안장비 수요가 형성
  - 개인은 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며, 기업이나 정부는 첨단 기술제품과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

### 2) 주요 사업자 현황

- ▶ TTIT-Solutions
  -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 위치한 TTIT-Solutions는 글로벌 보안 시스템 업체 Robert Bosch Limited의

- 공식 딜러로서 CCTV 시스템, 접근통제 시스템, 화재 경보 제품과 시스템, 빌딩관리 시스템 등을 취급
- Bosch 제품 외에도 중국 보안업체 Dahua의 접근통제 시스템과 CCTV, 삼성전자의 CCTV도 함께 취급
- 물리보안 제품 외에 엔드포인트 보안, 방화벽과 VPN, 침입방지시스템, 이메일 보안 등의 네트워크 보안 제품도 취급

▶ Kerberos Security

- 2006년 설립된 라오스 현지의 보안 전문업체로 안전 시공, 보안 감시와 설계, 보안 컨설팅, 시스템 통합 등의 영역에서 활동
- Kerberos Security는 라오스 프랑스 대사관의 CCTV와 접근통제, 통신 시스템 시공과 미국 대사관의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수주한 바 있음
- Kerberos Security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펜스 시스템, 접근통제와 신원관리, 아날로그 및 고해상도 디지털 CCTV, 침입 탐지 및 경보 시스템, 빌딩 자동화, 화재 경보 시스템, 차량 모니터링과 보호 시스템 등이 있음

▶ Trivico Computer Sole Co., Ltd

-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의 IT 종합 유통업체로, 보안 관련 제품으로는 중국 업체 Hikvision의 CCTV와 Kaspersky 및 Trend Micro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, 경보시스템 등을 취급

### 3) 주요 동향 및 이슈

▶ 라오스 보안장비 시장, 중국 업체들이 주도(2019.05)

- 보안 전문 매체 ASMag.com에 따르면 라오스의 보안 시장은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, 특히 HikVision과 Dahua의 인기가 높음
- 라오스 에너지와 광산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르며, 중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50억 달러를 원조하는 한편, 라오스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50억 달러를 지원
- 라오스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산과 사무실,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보안 제품을 선택하며, 정부 기관이나 교통 프로젝트에도 Dahua를 비롯한 중국 보안제품이 선호됨

▶ 라오스 디지털 도어록 시장 성장세(2019.05)

- KOTRA 라오스 무역관에 따르면 경제 발전에 따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등의 인프라가

개발되면서 디지털 도어록 등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

- 비교적 안전한 치안, 주택 위주의 주거 형태, 낮은 소득 등의 영향으로 일반 가정의 도어록 수요는 많지 않으나, 최근 아파트 등 신식 주거건물이 증가하면서 일반 가정의 수요도 점차 증가 추세
- 과거 일부 3성급 이상의 호텔,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에 국한되었던 디지털 도어록 수요는 상업용 부동산, 신축 관공서 건물로 확대되고 있음
- 라오스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제품 구매 시 품질과 기술보다 가격을 더 우선시하는 소비 경향을 보이나,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어록 등도 최근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하여 공유 주택과 호텔, 소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 테스트 및 초기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음
- 라오스 디지털 도어록 시장에서는 Colt(태국), Yale(다국적), HAFELE(다국적), Hikvision(중국) 브랜드가 보편적으로, 시장 규모가 작은 라오스의 기업들은 판권을 지닌 태국 유통기업으로부터 다국적 브랜드 제품을 수입, 판매함
- 라오스 소비자들은 기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와 사후 기술지원이 용이한 태국 제품 및 태국에서 유통하는 다국적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

▶ 라오스, 국제공항에 첨단 보안시스템 도입 계획(2016.10)

- '첨단 승객처리시스템(Advance Passenger Processing system, APP)'라는 명칭의 새로운 시스템은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시스템 도입을 위해 라오스 이민경찰국은 태국의 국가보안 시스템 업체 SOMAPA IT와 MOU를 체결
- 시스템 상에서 수집된 승객 정보는 라오스 내 이민경찰국과 승객이 향하는 목적지의 이민관리국에 곧바로 전송되어 테러 예방에 효과적
- 또한 동 시스템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승객을 확인할 수 있어, 해당 승객이 수속하는 경우 잠재적 보안 위험을 차단 가능
- 시스템을 구축할 SOMAPA IT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와 태국에 이어 라오스에 세 번째로 도입되는 것으로, 태국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테러와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 중

##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

### 1) 관련 법령 및 정책

#### 관련 법령 및 규제

- ▶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(Law on Prevention and Combating Cyber Crime)
  - 라오스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이 2015년 7월 발효되었음
  -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은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시스템,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원칙과 규제, 대응 조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동 법의 적용 대상은 라오스 국경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를 운영 및 처리하는 국내외 기업과 개인임
  - 동 법의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음

표 \_ 라오스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의 주요 원칙

#### 주요 원칙

1. 국가 정책과 법률, 전략 계획 및 사회경제 계획에 부응
2. 국가 문화와 전통, 국가 안보와 평화, 사회질서를 준수
3. 국가 및 조직, 개인의 기밀 보호
4. 통일성과 안전성,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
5. 법률과 규제에 의거해 서비스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와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를 보호
6. 사회의 참여를 보장
7. 라오스가 참여하는 국제협약 및 조약의 준수

[출처] Law on Prevention and Combating Cyber Crime, LaoCert

-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은 비인가 컴퓨터 접속 및 시청각 자료의 비인가 편집, 컴퓨터 정보의 비인가 탈취와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피해 유발, 음란물 유포, 컴퓨터 시스템 간섭,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의 위조와 파괴 등을 불법으로 규정
- 또한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긴급대응 계획을 규정하고, 우정통신부가 사고를 통지받아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

- 우정통신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관련 당국과 인원의 훈련, 긴급사고 모니터링과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등을 실시해야 함
-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은 또한 라오스 침해사고 대응팀(LaoCERT)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, LaoCERT에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규제방안의 연구개발과 컴퓨터 시스템 보안 인력의 개발과 훈련, 사이버보안 사고의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

▶ 전자 데이터보호법(Electronic Data Protection Law)

- 라오스 정부는 2017년 5월 12일 전자데이터보호법을 발효했음
- 동 법은 전자데이터를 출처를 밝힌 한 누구나 회람 및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, 그리고 소유주의 허락 없이 회람될 수 없으며 국가 정보와 개인/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정보로 분류

**주요 전략 및 정책**

▶ 제8차 2016-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(8th Five Year National Socio-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-2020)

- 라오스 정부는 ICT 약소국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ICT 분야의 발전과 관련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2011-2015년 제7차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인터넷, 통신, 우정 사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
- 2016년 발표된 제8차 2016-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강조하면서 ICT 발전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
  - 기초 통신 및 전자정보 인프라 개발 촉진, 서비스 부문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고속·고품질 서비스 제공, 전자상거래 촉진, 사회경제개발 강화,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ICT 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통신환경 업그레이드

표 \_ 제8차 2016-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ICT 주요 목표

달성 기간	주요 내용
2016년	국가인터넷서비스코드(ia)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
2018년	북부 및 중부지역에 인터넷 백업센터 구축
	라디오 주파수 관리센터 2곳 설립 및 해외 위성 대신 라오스 위성 사용 장려
	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자기록 취합을 위한 국가 데이터 센터 구축
	정부기관, 구역 및 마을의 50%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및 원격회의의 시스템 구축

달성 기간	주요 내용
	정부기관의 50%에 대한 전자 관리 및 서비스의 점진적 개발
2020년	ICT 기술응용학습센터를 마을 규모 단체에 2곳, 구역 규모 단체에 2곳 설립
	e-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일환으로 공중 및 지하 광섬유 네트워크를 1만 킬로 확장하여 전국적으로 각 시당국과 수도 비엔티엔에 연결
	고품질 고효율저비용 3G 및 4G 송수신국 확장으로 전 지역 서비스
	연간 GDP 성장률 8% 달성 위해 우정통신 분야의 매출 확대

[출처] 라오스 기획 투자부(2016.6)

▶ 2030년을 향한 ICT 비전 (ICT Vision 2030)

- 2015년 10월 라오스 우정통신부는 ICT 환경 조성을 위해 7가지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
- 7가지 세부 목표는 인적 자원 개발, 우편 부문 현대화, 사이버보안 강화, ICT 산업의 발전, 전자정부 구축, ICT 혁신 등임
- 우정통신부의 Thansamay Kommasith 장관은 2018년 비엔티엔에서 열린 라오스 ICT 엑스포 개최식에서도 2030년까지 라오스를 디지털 사회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다시금 확인했음
- 라오스는 그밖에 전자정부 개발계획 2013-2020, 2025년을 향한 ICT 전략 계획, 국가 ICT 정책 2015-2025 등을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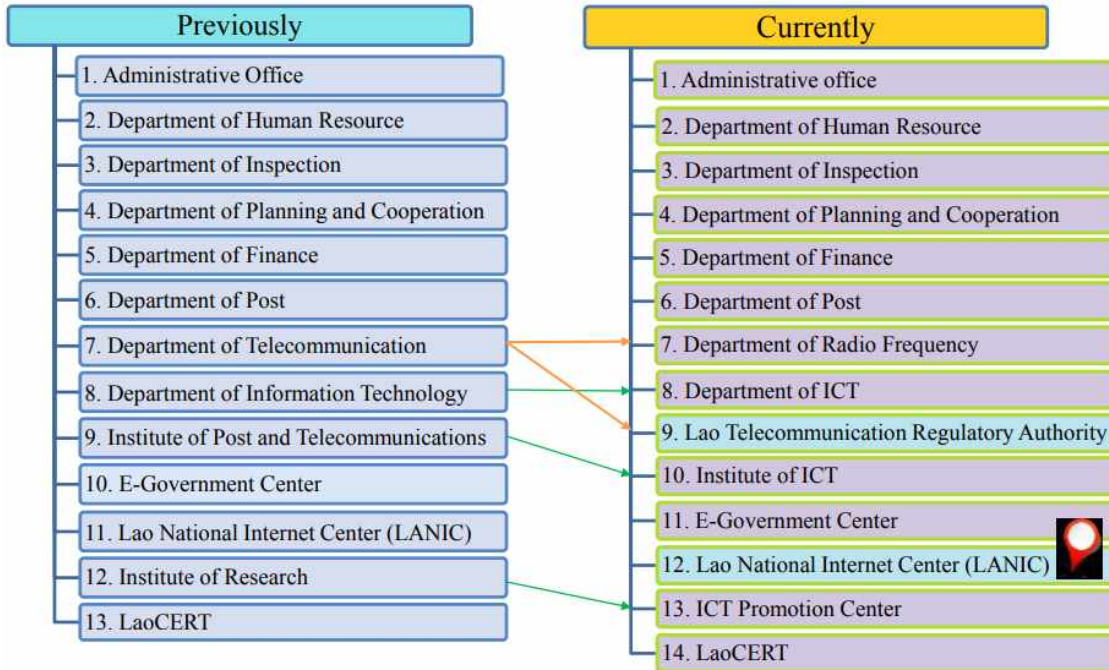
## 2) 담당기관

▶ 우정통신부(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, MPT)

- 2007년 10월 우편 및 정보통신 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직속 기구로 설립된 라오스 국가 우정통신청(National Authorit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)이 2011년 9월 우정통신부로 기관명을 변경함
- 우정통신부는 라오스의 우편 및 정보통신,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사업 실무 추진, 정보통신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주로 담당
- 우정통신부는 2017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통신국을 폐지하고 라오스 통신규제청(Lao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Authority)과 무선주파국(Department of Radio Frequency)를 신설함

- 또한 산하의 연구소(Institute of Research)를 폐지하고 ICT 증진센터(ICT Promotion Center)를 신설

그림 \_ 라오스 우정통신부 조직도



[출처] 라오스 우정통신부

- ▶ 라오스 침해사고 대응팀(Lao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: LaoCERT)
  - LaoCERT는 2012년 9월 라오스 우정통신부 산하 국가인터넷센터(Lao National Internet Center, LANIC)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, 2016년 6월 LANIC에서 독립되어 우정통신부 직속기관이 되었음
  - LaoCERT는 아시아태평양 CERT(APCERT)의 멤버이자 2016년 5월 카네기멜론대학으로부터 CERT 명칭의 사용을 정식으로 허가받았음
  - 2018년 현재 LaoCERT의 직원 수는 총 32명으로, 조직 구조는 관리 및 국제협력국, 연구개발국, 사고대응국, 행정인사국의 4개로 구성되어 있음
  - LaoCERT는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국가 사이버 전략의 수립 및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제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, 사고 처리와 대응, 경보발령, 네트워크 취약점 스캐닝, 기술 조언, 보안 의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

그림 \_ LaoCERT 조직도



[출처] LaoCERT(2018)

### 3)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

- ▶ 라오스, 전자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 계획(2019.07)
  - Boviengkham Vongdara 라오스 과학기술부 장관이 베트남 기업 LINA NETWORK와 MOU를 체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
  - MOU에 의하면 LINA NETWORK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라오스 정부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함
  - LINA NETWORK는 또한 5년 내 블록체인 연구개발센터 설립 및 정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연구 등을 위해 과학기술부에 50만 달러의 자금 원조를 제공하기로 함
- ▶ 라오스 최초의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 설립(2019.08)
  - 라오스公安부 산하 경찰국에 라오스 최초의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이 설립되었으며, 국제연합 마약범죄국((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, UNODC)이 노르웨이 정부의 자금 후원을 받아 실험실 설립을 지원함
  -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범죄조사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담당하게 됨

- ▶ 라오스-베트남, 전자정부와 사이버보안 협력 합의(2019.03)
  - 라오스 우정통신부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과 전자정부, 우편 서비스 개발 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
  - 이번 합의는 응유엔 마잉 흥(Nguyen Manh Hung)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한 동안 체결되었으며, 양국은 앞서 주파수 관리와 모터링, 인터넷 브로드밴드,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셜 미디어 관리 면에서도 협력을 지속해 왔음
  
- ▶ 라오스 우정통신부, 전자상거래 발전계획 추진(2018.03)
  - 2018년 3월 라오스 우정통신부는 향후 10년간 핵심적인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제시
  - 우정통신부는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 기초 인프라의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
  - 정보통신 인프라와 법제가 완비되면 국내외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될 전망
  - 우정통신부는 또한 현재 대부분 ASEAN 국가들보다 비싼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
  - 라오스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주변국으로부터 대역폭을 구매하기 때문에 요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, 주변국들과 협상을 통해 비용 절감 필요
  
- ▶ 캄보디아-라오스-미얀마-베트남(CLMV) 아세안 4개국 사이버보안 관련 워크숍 개최(2016.12)
  - 2016년 12월 스위스 ICT 평화재단의 지원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CLMV 국제 사이버보안 정책 및 외교 워크숍에서 CLMV 4개국은 사이버보안 규범과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협의
  - 각국은 사이버보안 협력을 통해 광케이블 백본망과 글로벌 은행 간 결제네트워크 등의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 및 아세안 커뮤니티의 성장 지원을 꾀할 방침
  - 라오스 우정통신부의 Thansamay Kommasith 장관은 라오스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ICT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
  - 그는 또한 ICT가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사이버 공격 등의 보안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,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적 보안 의무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

#### 4)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 동향

- ▶ 한-라오스 ICT·스타트업·농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(2019.09)
  - 한국과 라오스 정부는 9월 5일 정보통신기술과 스타트업, 농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
  - 양국 정상은 방송·통신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'한-라 ICT 협력 양해각서', 스타트업·혁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설립 예정인 '스타트업 국제기구'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'한-라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' 등을 체결
  - 아울러 양국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기본약정을 체결, 우리 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라오스 측에 총 5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함

### 융합보안 정책 및 시장 현황

#### 핀테크<sup>1</sup>

- ▶ 라오스는 핀테크 산업 발전 초기 단계로 은행이 주도하여 시장을 이끌고 있음
  - 2017년 12월 라오스 최대 은행 BCEL((Banque pour le Commerce Exterieur du Lao))이 모바일뱅킹 앱 'BCEL One'을 론칭한 것이 계기가 됨
  - 산업 발전 초기 단계로서, 다양한 금융분야 지불 서비스 중 휴대전화 요금 충전, 공과금 납부, QR코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지불·송금 수준에 그침
  - 결제시스템의 경우 BCEL의 결제시스템 'One Pay'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짐
- ▶ 중국 관광객의 자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핀테크 기업의 라오스 시장 진입을 허용
  - 2019년 9월부터는 중국의 알리페이, 위챗페이도 BCEL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, BCEL이 가진 자체 가맹점은 전국 1만여 곳이 넘음

1

<http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AllBbs/kotranews/album/781/globalBbsDataAllView.do?dataIdx=178519&column=&search=&searchAreaCd=&searchNationCd=&searchTradeCd=&searchStartDate=&searchEndDate=&searchCategoryIdx=&searchIndustryCatIdx=&searchItemName=&searchItemCode=&page=4&row=10>